

1929.11.03. 광주항일학생운동

2016.11.03 ~ing

2000~2005 학생두발자유운동

2010.10.05 최초 학생인권조례 공포(경기)

2008.04~08 광우병 촛불 집회

2016 학생의 날 신문

펴낸 날 | 2016년 학생의 날
펴낸 곳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 집 | 전교조 학생인권국
디자인 | 윤서 (wowoowa@gmail.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6년의 청소년

2016년, 86돌 학생의 날을 맞았다. 2000년대 초반의 학생두발자유운동, 2008년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지나 5개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오늘날까지 학생·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다양한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2016년은 어땠나. 지난 해 하반기의 최고 이슈였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은 해를 넘기면서도 이어졌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0주년을 맞이해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활동을 두게 되었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 성주군의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배치 반대 집회에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많은 활동을 이뤄내었다.

아래 5장의 사진을 통해 올해의 청소년 운동을 다시금 되짚어보자.



왼쪽부터 청소년 행동 어명(전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의 청소년 기록제 행사 (1월) | 청소년 녹색당 창립 총회 (2월) | 광주 학생 인권 조례 개악 반대 피켓팅 (6월)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10주년 맞이 후원주점 <10년만의 생일파티> (7월)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습시간 줄이기 5대 요구안 국회 청원제출 기자회견> (9월) | 사진 출처: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학생의 날 년 누구니



1929년 11월 3일,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과 무시에 분노한 광주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 일본의 식민지 교육 반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광주를 시작으로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전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학생들의 저항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 집니다. 학생들은 11월 3일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독재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의 저항에 부담을 느낀 독재정권은 공식 기념일이었던 11월 3일 '학생의 날'을 폐지했지만, 학생들의 저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뒤 '학생의 날'은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사회 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정부는 교사들을 대량해고하였고, 분노한 학생들은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학교점거, 시험거부(백지동맹), 단식 등을 하며 저항합니다.



'학생의 날'이 시작되었던 학생항일 독립운동으로부터 어느덧 87년. 학생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참여하는 이 교육은 과연 나아졌나요? 2016년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더 나은 학교,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저항정신은 오늘 까지도 -ing!

에어컨 바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많은 전기가 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90% 이상의 화력발전과 핵발전(원자력발전)으로 만든다. 정부는 핵발전이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던데, 정말일까?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선 요즘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에어컨 틀자고 조르기만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이제 청소년이 직접 이야기하면 어떨까? 청소년 녹색당을 준비 중인 녹쟁이 씨에게 핵발전의 진실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방법,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화의 방향을 물었다.

의 노후화, 지진·해일 등의 이유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 핵발전 후에 생기는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방사능이 보통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10만 년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은 인류에게 없다. 핵발전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대책 없는 에너지이므로 멈춰야 한다.

- 한편으로는 핵발전 없이도 전기 쓰는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완전한 탈핵이 가능할까?

녹쟁이 : 가능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기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 2011년 20%를 넘어섰다. 그렇게 2022년까지 탈핵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고, 정부 또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부가

들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 경쟁, 입시 경쟁도 지금보다 훨씬 널널해질 것이다.

- 청소년녹색당은 어떤 데인가? 그런데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

녹쟁이 : 청소년들의 정당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녹색당은 창당 때부터 청소년의 당원 가입을 인정해왔고, 청소년 당원은 비청소년 당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 대의원도 4명 추천한다.* 청소년녹색당(준)은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고 행동하는 조직이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청소년녹색당(준)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환영한다. 당원 가입 후 나를 비롯한 청소년 녹색당 준비위원이나 녹색당 사무처에 연락을 주면 청소년녹색당(준)에 가입할 수 있다.

(* 대의원은 당 안에서 당원들의 뜻을 대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천, 즉 제비뽑기로 뽑고 있다.)

- 날씨가 더워져 학교에서도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 녹색당원이라면 에어컨을 트는 걸 반대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

녹쟁이 : 꼭 그런 건 아니다.(웃음) 녹색당에는 전기를 덜 쓰고, 고기를 덜 먹고, 화석 연료를 덜 쓰려는 당원이 꽤 많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사회구조에 있고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턱도 없다. 에어컨을 다 끄는 게 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청소년녹색당 준비모임(현 청소년녹색당)이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

- 환경이나 생태운동을 보면 '엄마 마인드'로,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가령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자거나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주자는 것들 말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녹색당 준비모임의 입장은 어떤가?

녹쟁이 :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등 차별적 구

- 지금의 에너지정책엔 어떤 문제가 있나?

녹쟁이 :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고서 산업용 요금을 적게 책정해 소비가 늘고, 발전소를 더 짓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사람들이 전기를 쓰는 양(수요)이 이제 그다지 늘지 않고 있는데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상승률을 예상했다. 수요 제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를 덜 쓰게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고압송전탑이 필요해진다. 발전소나 송전탑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전자파 등이 생태를 파괴한다. 전기를 덜 쓰며 지역별로 에너지를 자급하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발전은 대책 없는 에너지"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와 밀양송전탑 반대운동 이후에 '탈핵', 핵발전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 '탈핵'이 필요한가?

녹쟁이 :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20~30km 이내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 사람의 실수, 기계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더 적게 번 만큼을 지원해주는 제도)

"우리도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 녹색당이 단지 에너지 문제만 이야기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청년은 입시부터 취업까지의 무한 경쟁, 그리고 생계를 스스로 혹은 가족끼리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불안한 삶에 시달린다. 녹색당은 이런 문제에 관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녹쟁이 : 녹색당은 더욱 안전한 사회, 더 공평한 사회, 더욱 민주적인 사회, 그래서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그러는 사이 정말 중요한 불평등의 문제와 생태 문제, 소수자 인권 등은 뒷전이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두가 적은 시간 노동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 해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 대신 더 많은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만약 학생, 예술가, 시민단체 활동가, 자원봉사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임금을 못 받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생계를 보장한다면 어떨까? 그

호에 대해 녹색당 및 환경생태운동 내외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지금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며 주체라고. 보여주기만을 위한 장식품이나 비청소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청소년녹색당은 모두에게 평등한 정당, 나아가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밀루 기자

본 인터뷰를 비롯해 청소년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블로그 yosm.asunaro.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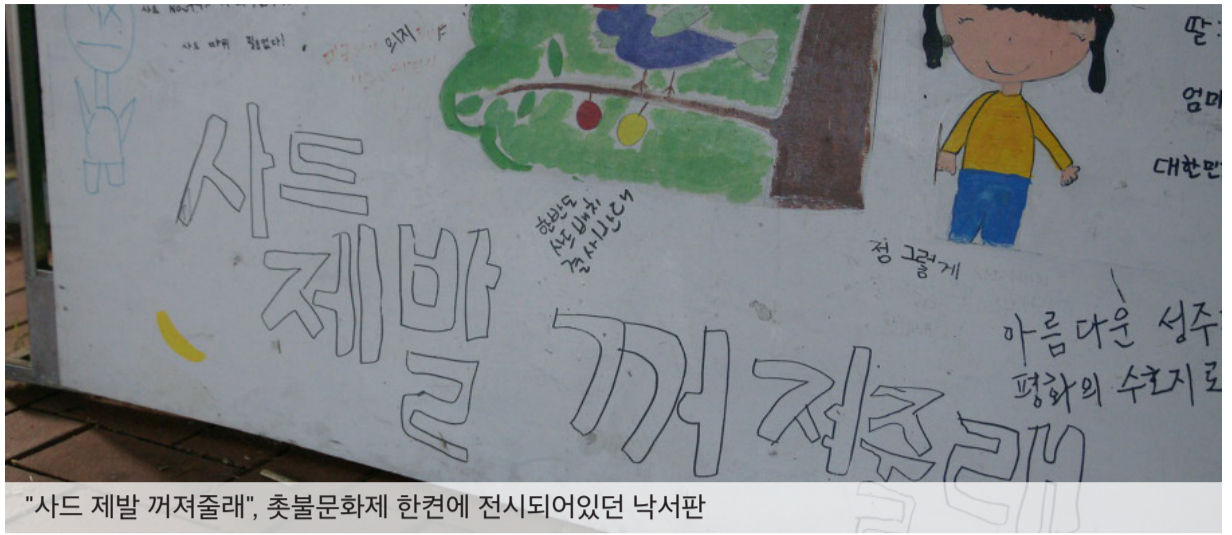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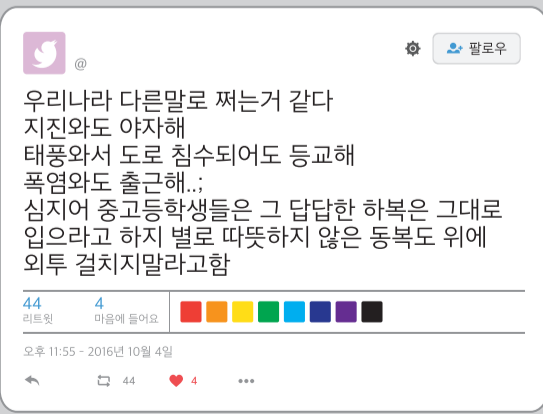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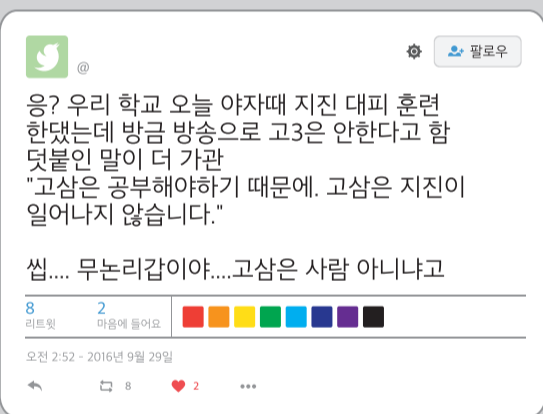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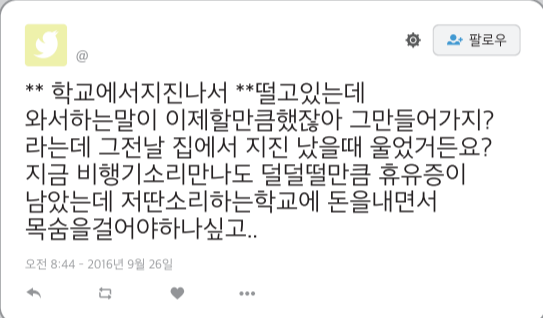
학교 내 안전, '발전이 없다'

2016년 9월 12일, 낮선 흔들림이 한반도를 덮쳤다.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까지 그 진동을 느꼈을 정도이니 경상북도 도민들이 겪었을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본진 이후 여진이 400여 차례 발생하면서 공포는 더욱 가중되었다. 일본 도쿄의 방재 책자 <도쿄방재>의 한국어판이 뒤늦게 온라인으로 번졌고, 각종 매체에서 지진 대비를 다뤘다.

그동안 학교는 어땠을까? 세월호 이후 2년이 넘게 흐른 시점에서 일어난 재난이었으니 국민들은 학교의 대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는 이제 학교로부터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글쎄, 아래 학생·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증언한 내용을 보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증언이 곧 학교사회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사드 제발 꺼져줄래", 촛불문화제 한켠에 전시되어있던 낙서판

지워지는, 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성주 사드배치 반대 청소년의 목소리

사드가 나타났다.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군사무기다.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군사적 평형이 무너지고, 전쟁 역지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역지력이란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뜻한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더욱 강한 방공미사일을 2019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최중 선정된 장소는 성주 성산포대, 거론되지 않던 뜬금없는 장소였다. 성주군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집회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때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뿐,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7월 중순에는 수업을 거부하며 집회에 나선 학생들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7월 24일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에 학생들의 집회참여를 자제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드 홍보자료와 함께 발송했다.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이 겪을 악성 댓글과 불이익을 염려해 집회 현장에서도 마스크가 나누어졌다.

우리도 생각이 있는 인간이고 국민이니

많은 청소년은 지금도 자신의 권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제 해묵은 동원설과 '돌아가서 공부나 해라'는 말은 치울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스스로 사고하며 설득을 받아들이거나 배제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주체성을 재단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나이가 적다는 것은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밀루 기자

본 인터뷰의 원문과 청소년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블로그 yosm.asunaro.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 나는 왜 교원평가에 반대하는가?

관심 없다, 교원평가

학생 입장에서 교원 평가의 문제를 떠올려보면 사실 문제라는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귀찮은 가정통신문이 많아지거나 먼지 뽀얀 학교 컴퓨터실을 가볼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교원평가가 이렇게 1도 쓸 데가 없어진 이유는, '평가'라는 악독한 속성 때문일 것이다. 평가라면 이골이 난 학생의 입장에서 단언코 평가는 악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평가라는 건 진짜로 그렇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교사라면 으레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껏 평가를 하는 위치에서 당하는 입장으로 전락했으니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자존심이 상할 뿐이고, 학생들은 이 평가로 인해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해본 적도 없다.

'클릭질'로 교육을 바꿀 수 없다

또한 평가는 단순한 만큼 쉽다. 우리가 얼마나 '학생 다운지' 판단하기 위해 고작 두발 길이와 손톱 색깔을 평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교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겨우 1년에 한 번 10분밖에 안 걸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

는다. 게다가 지금껏 일방적 수업을 해놓고는 이제야 평가를 통해 그 수업들을 심판한다고 해봤자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 경험상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수업의 선생님한테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도 수업 형태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만들려는 노력과 이 단단한 학벌주의를 깨려는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단순한 교원평가가 이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리 없었다.

인권침해가 '능력'으로 둔갑

실사 교원 평가로 검증된 '능력 있는' 교사라 해도, 교사의 능력과 학생의 인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여전히 학생의 성적을 높이는 게 교사의 능력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온갖 반인권적인 행위가 교사의 '능력'으로 둔갑되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다.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될 때 오랫동안 굶아 온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홍콩 우산혁명 이후 2년, "우리의 삶은 정치로 가득 찼어요"



왼쪽 플라이, 오른쪽 키미.

2014년 홍콩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산혁명은 중국에서의 독립을 갈망하는 홍콩인들의 요구가 터져 나온 결과였다. 시민들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의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유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혁명은 홍콩의 청소년 단체인 '학민사조(Scholarism)'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혁명 이후 2년, 홍콩에서는 당시 혁명의 주역들이 창당을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러 온 홍콩의 청소년 활동가 키미와 플라이를 만나 달아오르는 홍콩의 본토주의 운동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물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키미: 중고등학교 4학년이고, 홍콩의 본토주의 학생단체(Student Localism)에서 활동하고 있는 키미예요.

플라이: 홍콩에서 온 플라이예요. 처음 우산혁명에 참여했을 당시 14살이었어요. 그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참여자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흉터를 가지고 있죠.

경찰이 무력진압을 일삼았을 정도면 혁명에 참여하는 자체를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산혁명이나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플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나쁜 결정들에 대해 듣고 우산 혁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정부 광장에서 학생행동이 시작된 이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키미: 2014년 9월 28일에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어요.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 자리에 저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혁명에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혁명의 현장에서 청소년(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키미: 특별한 역할이란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참여자와 어른 참여자는 모두 평등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함께 혁명을 했을 뿐이에요. 물론 시위 현장 밖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어른들은 있었어요.

혁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플라이: 미디어에서 혁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천사처럼 묘사하곤 했어요. (웃음)

키미: 홍콩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세대 차이예요. 어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그들이 가진 나이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위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어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여하기보다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플라이: 많은 학교들이 혁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혁명 이후 학생들을 벌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 이후, 새로운 당을 만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플라이: 그 후 우리의 삶은 정치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SNS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올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정치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시위를 참여하면서 홍콩 정부에 실망을 느낀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키미: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광고]

왕꿈틀이 공모전: 청소년도 밟으면 꿈틀한다! 저항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이하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왕꿈틀이 공모전: 청소년도 밟으면 꿈틀한다!>를 통해 청소년들의 저항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학생·청소년이라 받는 차별적인 대우 앞에서 조금이라도 '꿈틀'했던 저항의 경험이 있다면, 다음의 링크(goo.gl/c6GfbM)를 통해 직접 사례와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꿈틀한 경험'은 차별과 억압 앞에 맞선 모든 형태의 저항을 말한다. 침묵으로 상대를 애태우거나, 문제제기를 통해 차별적 정책/규칙/관행을 바꾸거나, 편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은 경험 등 가만히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사례는 수집, 정리되어 올 하반기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보 예시
<여기서 도시락 먹으면 안돼!>

초등학생들은 현장학습으로 박물관에 많이 가는데요. 현장학습을 갈 땐 점심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 막상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써서 보냈더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청소년도 밟으면 꿈틀한다!

왕꿈틀이 공모전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해야!
그런 건 나중에 어른 돼서 하는 거야
학생 자치? 적당히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말들에 꿈틀했던 경험이 있다면? 리얼한,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모두 괜찮습니다. 자칫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좋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꿈틀**, 널리 알리면 **왕꿈틀**~

- 1) "애들은 가라"? 어른들끼리 결정하려고 할 때 끼어들어본 사례
- 2) "학생은 공부나 해"? 사회적 이슈에 "나도 할 말 있다"고 외쳐본 사례
- 3) "학생답게, 여자답게"? X마이웨이~ 부당한 규범과 편견에 도전해본 사례
- 4)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정책, 규칙, 관행을 바꿔본 사례

애태우기 위한 침묵부터 적극적 저항까지!
알아주든 몰라주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티끌 같은 저항도 좋아요!👍

* 제보 기간 : 2016.10.~11.06 * 제보 방법 : goo.gl/c6GfbM

남겨주신 연락처는 제보해주신 내용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발표에 초대할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